총무원장 자승스님께서 축하의 마음을 보내 주셨습니다. 청림회 문화회관이 개원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기에 오늘 꼭 참석하고자 하셨으나, 중앙종회 등 종단 일정으로 부득이 함께하지 못하셨습니다. 인사말에 앞서 제가 총무원장스님의 축하의 마음을 잠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한 정성과 원력의 실천이 생생하게 담긴, 대전비구니 청림회 문화회관 낙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청명하고 풍성한 절기의 향기로움답게, 오늘 사부대중에게 문화회관 낙성은 진정한 수확이자 나눔입니다.

나아가, 사회와 이웃에게 희망의 길잡이가 되겠다는 종단의 서원을, 종교인의 책무를 잊지 않고 실천하는 향기로운 모범이기도 합니다.

효경스님을 중심으로 청림회의 오랜 정진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한결같은 마음가짐에도 고마움을 전해드립니다. 이러한 성취들이 모든 이들의 앞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행복이 넘치는 사회를 이끌어 가는 소중한 주춧돌이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총무원장스님께서 이렇게 축하의 마음을 보내주셨습니다. 원장스님께 감사를 드리며 제 인사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